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우울과 사회적 위축감을 매개로 비행피해에 미치는 영향

최현주* · 신혜진**

초 록

본 연구는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부정적, 긍정적 양육태도와 비행피해 경험의 관계를 우울과 사회적 위축이라는 심리적 특성이 어떻게 매개하는지 경로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한국 아동·청소년패널 조사(KCYPS)의 중1 패널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시간차를 두어 중1 시점의 부모 양육태도가 중2시점의 심리적 특성을 매개로 중3 시점의 비행 피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첫째, 중학생이 1학년 시점에 지각한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긍정적 양육태도 변인 모두 2학년 시점의 우울과는 유의한 관계를 나타냈으나 사회적 위축과는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둘째, 중2 시점의 우울은 중3 시점의 비행피해 경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나 사회적 위축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우울은 사회적 위축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 양육태도는 비행피해 경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를 종합하면,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긍정적, 부정적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고 우울 수준은 다시 사회적 위축감을 증대시켜 후속적으로 비행피해를 경험할 위험이 높아지는 이중매개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이론 및 실무 측면에서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부모의 양육태도, 우울, 사회적 위축, 비행피해, 경로분석

* 고려대학교 대학교육개발원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초교육학부, 교신저자, hjshin@snut.ac.kr

I. 서 론

청소년기에 일어나는 비행 피해의 유해성은 여러 조사와 연구들을 통해 그 심각성이 입증되어 왔다. 비행 피해란, “폭행 당하기”, “돈이나 물품을 탈취당하기”, “심한 놀림과 조롱 당하기를 비롯한 집단 따돌림 당하기”, “신체적 괴롭힘 등 협박당하기”, 그리고 “성폭행이나 성희롱 당하기” 등을 포함한 비행 행위의 피해 경험을 의미한다(이종원 외, 2013). 비행 피해를 경험한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자살에 대해 생각하는 빈도가 유의하게 높고(권세원, 이동은, 장은혜, 한기주, 2013), 사회적 유능감이 낮은 편이며(정하은, 전종철, 2012), 친밀한 또래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다(Bifulco, Schimmenti, Jacobs, Bunn & Rusu, 2014). 뿐만 아니라, 낮은 자존감과 우울, 불안 등 부정적인 내현화 문제를 경험하고(김현숙, 2013) 일부 청소년의 경우, 정신병적 증상을 비롯한 심각한 부적응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신성웅, 권석우, 신민섭, 조수철, 2000; 조예진, 주해원, 현명호, 2015). 비행 피해 경험을 예방하고 적절하게 개입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실시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학교나 또래 중심의 연구가 많은 편이다. 예컨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갈등해결방법을 교육하거나 성공적인 개입을 위해 교사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제도적 측면의 개선에 대한 논의를 담은 연구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루어진 영역이 부모의 역할이다(이상균, 정현주, 2013).

그러나 일각에서는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의 질이 비행 피해 경험의 주요한 예측변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도현심 외, 2003; 조예진, 주해원, 현명호, 2015; Rigby, Slee & Martin, 2007; Perry, Hodges & Egan, 2001).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공격행동을 감소시키고, 덜 위축되게 하며, 사회성을 좋게함으로써 또래관계 형성에도 도움을 주어 비행피해를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최정아, 2011; 김유자, 백용매, 2000). 반면, 학대나 과잉통제, 빈약한 애착 등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독립심과 자존감을 저하시킴으로써 비행 피해를 경험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Georgiou, 2008; Perry et al., 2001; 도현심 외, 2003). 한편, 부모의 양육태도와 비행피해 경험의 연계성을 입증하는 기존 연구들의 한계점은 이들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을 함께 살펴보지 못한 데 있다(조예진 외, 2015; Turner et al., 2010). 예컨대, 부모의 긍정적, 부정적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심리 특성이라는 구체적인 매개 변인을 통해 청소년으로 하여금 비행 피해의 대상이 될 가능성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Perry et al., 2001; Turner et al., 2010). 특히, 부정적 양육태도로 초래된 심리특성은 청소년으로 하여금 비행의 표적이 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Turner et al., 2010). 부모와의 부정적인 상호작용으로 인해 우울함이나 사회적 위축감을 보이는 청소년의 경우, 가해자가 보기에 자기 주장이 약하고 괴롭힘을 당해도 적절히 대처하는 힘이 부족하다고 평가하여 더욱 피해의 대상이 되기 쉽기 때문이다(Batanova & Loukas, 2014; Marini, 2006; Rigby, 2007).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부정적 심리특성을 주로 비행 피해 경험의 결과로 분석해왔다. 즉, 청소년의 비행피해 경험과 정서간의 관계를 연구한 많은 연구에서 비행피해가 정서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권세원, 이동은, 장은혜, 한기주, 2013; 김재엽, 장용연, 민지아, 2011; 김현숙, 2013; 신성웅, 권석우, 신민섭, 조수철, 2000; 정하은, 전종설, 2012; 한상영, 전용관, 2012; Bifulco et al., 2014)는 많이 이루어졌으나 청소년의 심리 특성을 비행피해 경험의 예측변인으로서 살펴본 인과적 연구(Marini, 2006; 조예진 외, 2015)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 태도가 청소년의 우울과 사회적 위축이라는 부정적인 정서를 유발하고(김진아, 한귀례, 2014; 박은주, 2014; 서석남, 이상구, 임상호, 2012; 이주리, 2010; 정경미, 2013; Mills & Rubin, 1998; Dill et al., 2004), 사회적 위축과 우울이 다양한 비행피해 경험을 증가시킨다(김재엽, 최권호, 2012; 도현심, 1998; 윤소영, 유미숙, 2011; 이춘재, 곽금주, 2000; 조예진 외, 2015)는 선행연구 결과에 기반하여, 부모의 양육태도, 청소년의 우울 및 사회적 위축감 그리고 후속되는 비행피해 경험 간의 구조적 관계와 인과 경로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중학교 1학년 시점에 지각된 부모 양육태도가 중학교 2학년 시점의 우울 및 사회적 위축에 영향을 미쳐 이로 인해 중학교 3학년 시절의 비행피해 경험이 달라진다는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종단자료를 활용하고자 한다. 특히, 청소년의 지속된 우울은 사회적 위축의 주요 예측변인으로 보고된 만큼(이봉주, 민원홍, 김정은, 2014; Crozer & Aldon, 2005; Rubin & Coplan, 2004), 우울감이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 뿐만 아니라 긍정적 양육태도의 영향도 함께 살펴봄으로써 부모의 양육태도에서 비행피해로 이어지는 경로를 보다 포괄적으로 분석한 구조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우울 및 사회적 위축감, 비행피해 경험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우울 및 사회적 위축감, 비행피해 경험의 구조적 관계는 무엇인가?
- 연구문제 3.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비행 피해 경험 간의 관계에서 우울과 사회적 위축의 단일매개효과와 이중매개효과가 존재하는가?

II. 이론적 배경

1.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비행 피해

부모와 자녀 간 관계의 질은 비행 피해 경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어왔다(도현심 외, 2003; 조예진 외, 2015; Perry, Hodges & Egan, 2001; Rigby et al., 2007). 예컨대, Bowlby(1988)는 애착이론을 통해 아동기에 부모를 비롯한 주 양육자로부터 애정이 결여된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한 경우, 학령기에 또래와도 건강한 사회관계를 맺기 어려움을 주장하였다. Perry와 동료들(2001)도 가족관계도식 모형(family relational schema model)을 제시하며 부모로부터 정서적으로 냉담하고 지나친 통제와 간섭을 받는 양육을 경험한 아동, 청소년 자녀는 낮은 자존감과 의존성, 그리고 사회적 위축과 불안감을 내재화하게 되어 또래관계에서 비행 피해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실제로, 또래로부터 괴롭힘을 경험하는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아동학대, 빈약한 애착, 그리고 취약한 갈등관리와 같은 가족특성을 좀 더 빈번하게 보이는 경향이 있으며(Georgiou, 2008; Perry et al., 1991), 비행 피해 아동 부모의 양육 행동 특성에 대한 연구에서도 부모의 통제가 또래로부터의 괴롭힘 피해 경험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Perry et al., 2001). 특히, 부모의 통제는 아동 및 청소년 자녀의 독립심과 자아존중감을 위협하며, 부모가

지배적이고 간섭을 많이 할 때 자녀가 위축되거나 수줍은 행동을 보이기 쉬운데, 이러한 수줍음이 비행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도현심 외, 2003).

한편, 종단 자료를 이용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부모로부터 정서적 지지 수준이 낮고 비일관된 훈육을 받은 아동의 경우,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많은 문제행동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이상균, 2009, 2012). 마찬가지로, 이성식(2007)은 청소년 패널 조사의 1차년도에서 3차년도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모와의 유대감이 청소년의 경비행 경험 가능성을 낮추었다고 보고하였으며, 이상균(2008)은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의 종단자료를 바탕으로 중학교 2학년 시점에 지각한 부모의 지도, 감독이 고등학교 2학년 시점의 비행행동 경험수준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종합해볼 때, 통제, 학대, 지나친 간섭과 같은 부정적 양육행동은 자녀로 하여금 비행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반면, 일관된 지도, 감독, 애정어린 보살핌과 같이 긍정적인 양육행동은 자녀가 비행 피해를 경험할 가능성을 줄여주는 보호요인임을 알 수 있다.(이상균, 2012; Batanova & Loukas, 2014; Rigby et al., 2007).

2. 부모 양육태도와 비행피해의 심리적 매개변인: 우울

우울은 청소년기의 심리적 부적응 가운데 가장 보편적이며(신민섭 오경자, 1993), 청소년기에 급증하게 되는 정서적 주요 현상이다. 하지만 청소년의 우울은 성인과 달리, 짜증, 신체증상, 학습부진, 공격적 행동 등 다양한 행동적 특징이 두드러지는 성향을 띤다(소선숙, 2008). 이러한 청소년의 우울은 비행 피해 경험에도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재엽, 최권호, 2012; 신희경, 2006; 윤소영, 유미숙, 2011). Marini(2006)는 청소년 비행 피해경험에 영향을 주는 심리·사회적 위험요인에 대한 연구에서 우울이 비행 피해경험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밝히고 있다. Rigby와 동료들(2007)도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또래 피해 경험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우울 및 불안이 또래 피해를 예측하는 주요변인이 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Turner와 동료들(2010)은 우울함과 불안감을 보이는 청소년의 경우, 가해자가 보기에 자기 주장이 약하고 괴롭힘을 당해도 적절히 대처하는 힘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더욱 피해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지적하고 이를 경험적으로 입증하였다(Turner et al., 2010).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의 연구들은 우울을 비롯한 청소년의 부정적 심리 특성을 비행피해 경험의 결과로서만 살펴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Hong et al., 2014; Turner et al., 2010).

한편,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정서 및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비행 피해 경험 수준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Perry et al., 2001). 성장과정에서 경험하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자녀의 성격, 자아개념, 태도, 가치관 형성과 우울, 문제 행동 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권재환, 이은희, 2006; 박경인, 정승원, 신안나, 2013; 소선숙, 송민경, 김청송, 2010; 이영미, 민하영, 2004; 이희영, 최태진, 2005). 예컨대, 부모의 양육행동이 애정이 없고 통제적일 때 청소년 자녀의 우울과 정적 상관관이 있었다(전성일 외, 1996; Batanova & Loukas, 2014). 즉,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권위적이며 지나치게 엄격한 간섭의 성향을 보일 때 우울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하게 청소년이 느끼는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스트레스와 우울을 증가시켜, 자기효능감 및 학교생활적응을 감소시킨다는 연구결과가 있다(서석남, 이상구, 임상호, 2012). 선행연구들은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정서적 학대의 성향을 보일 때, 우울과 관련이 매우 큼을 보고 하였다(박은주, 2014; Cicchetti et al., 1994). 그러나 우울을 비행피해 경험의 선행 위험요인으로 살펴본 연구도 많지 않지만, 이를 부모 양육태도와 연계하여 부모 양육태도와 비행 피해 경험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으로 살펴본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Batanova & Loukas, 2014).

3. 부모 양육태도와 비행피해의 심리적 매개변인: 사회적위축

우울과 더불어 비행 피해 청소년이 보이는 대표적 심리 특성의 하나가 사회불안 내지 사회적 위축이다(Hong et al., 2014; Perry et al., 2001; Tuner et al., 2010). 사회적 위축행동은 우울이나 불안 등의 부정적 정서와도 관계가 깊다는 점에서(김진아, 한귀례, 2014)도 중요하게 다뤄져야할 필요가 있는 변인이다. 사회적 위축이란 사회적 상황에서 관계를 맺지 못하고 소극적이거나 회피적 태도를 보이는 모든 행동을 의미하는데(정경미 외, 2013; Rubin, Burgess, Kennedy & Stewart, 2003), 부모로부터

적대적인 양육행동을 경험한 자녀는 이를 상당한 심리적 위협으로 느끼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못하고 위축된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김진아, 한귀례, 2014; Davies & Cummings, 1994). 예컨대, 언어 폭력을 행사하고 자녀를 비난하며 권위주의적인 양육행동을 경험한 자녀의 경우 스스로 사랑과 존중을 받지 못한다고 느끼게 되어(Patterson & Bank, 1989) 복종하고 의존하는 패턴을 발달시킬 가능성이 높다(Batanova & Loukas, 2014; Perry et al., 2001). 마찬가지로, 부모로부터 낮은 수준의 돌봄을 경험한 자녀는 사회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높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위축 수준이 증가한다는 연구가 보고되었다(정경미, 2013). 또한, 부모로부터 지나치게 간섭을 받는 과보호를 경험하는 아동 및 청소년 역시 사회적으로 위축된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이찬숙, 현은자, 2008; Mills & Rubin, 1998; Perry et al., 2001). 반면, 부모로부터 온정적이며 수용적인 양육행동을 주로 경험한 아동, 청소년은 사회적 위축을 나타낼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으며(이찬숙, 현은자, 2008). 어머니의 양육행동 가운데 자녀의 독립심을 격려하는 것이 자녀의 사회적 위축과 부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박보경, 2013).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통해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을 예측하는 강력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지배적이고 간섭이 많은 부모의 자녀들은 위축되고 수줍어하는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곧 학교폭력 등 비행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도현심 외, 2003). 기존의 연구들(Perry, Hodges & Egan, 2001)은 부모의 통제와 또래피해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는 경향이 있는데, 부모의 간섭과 지배적 태도를 주로 경험한 아동은 더 위축되거나 수줍은 행동을 더 많이 보였고, 수줍음은 비행 피해와 정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도현심, 1998). 무엇보다도, 또래로부터 비행 피해를 당한 아동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던 연구자들은(Dill et al., 2004) 사회적 위축이 또래 거절과 괴롭힘의 첫 단계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렇듯, 사회적 위축은 비행피해의 대상으로 이어지는 주요한 심리특성이며 부모 양육태도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간의 구조를 체계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조예진 외, 2015). 그리고 이마저도 부모의 양육태도와 사회적 위축 변인의 측정시점을 동일하게 설정하여 분석함으로써 인과 관계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으며, 부정적 양육태도 외에 긍정적 양육태도의 영향력을 함께 살펴보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4. 청소년의 우울과 사회적 위축

선행연구들은 사회적 위축과 우울 사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고해왔다(이봉주 외, 2014; Bell-Dolan, Reaven & Petterson, 1993; Boivin, Hymel & Bukowski, 1995). 예컨대, 행동 관찰을 통해 유치원에서의 사회적 위축이 초등학교 5학년 때의 우울을 예측한다는 사실이 밝혀진 바 있으며(Rubin et al., 1989), 4세 때 억제된 정서를 경험한 아동은 잘 적응한 아동에 비해 21세 때 더 큰 우울을 경험했음을 밝혔다(Ollendick et al., 1990). 국·내외 연구들에서 청소년의 우울 및 불안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적 위축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우울·불안을 사회적 위축의 주요 예측요인으로 보고하고 있다(이봉주 외, 2004; Crozer & Aldon, 2005; Rubin & Coplan, 2004). 일각에서는 우울과 사회적 위축 변인은 상호관련성을 갖으며, 사회적 위축이 우울을 야기하기도 하지만 우울이 사회적 위축을 예측하기도 한다고 지적한다(김보영, 장은비, 2015; 이봉주 외, 2014). 그러나 두 변인을 부모양육태도와 관련지었을 때, 부모와의 애착이 불안정한 경우, 우울이 사회적 위축을 예측했다는 선행연구 결과가 존재한다(Gullone, Ollendick & King, 2006). 이렇게 볼 때, 부모의 양육태도로 초래된 우울감이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 나아가, 비행 피해 위험수준이 높은 청소년의 대표적인 심리적 특성으로 논의되어온 사회적 위축이 비행 피해 경험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지 통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들 변인 간의 구조적 인과관계를 충분히 설명하기 위해서는 측정 시점을 달리한 종단 연구 설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집한 한국 아동·청소년패널(KCYPS)자료 중 중학교 1학년 패널의 1차년도에서 3차년도까지의 자료를 사용하여 진행되었다.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은 층화다단계 집단추출 방법을 사용하여 전국에 걸쳐 표본을 추출한 것으로서 종단연구에 활용하기 적합한 자료로 볼 수 있다. 본 연구 최종 분석 대상은 2,351명이었고 남학생은 1,176명(50%), 여학생은 1,175명(50%)이었다.

2. 연구변인

1) 부모 양육 태도 (중1 자료)

본 연구에 사용된 부모 양육 태도는 허묘연(1999, 2004)이 개발하고 타당화한 PBI (Parenting Behavior Inventory) 부모양육행동척도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원 척도는 자기보고형 설문지로서 총 43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위요인은 부모의 긍정적 태도와 관련된 감독 4문항, 합리적 설명 5문항, 애정 6문항과 부모의 부정적 태도와 관련된 과잉기대 6문항, 과잉간섭 7문항, 학대 6문항, 방치 5문항, 비일관성 4문항의 8개로 점수가 높아질수록 각각의 양육태도를 더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각 문항은 Likert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와 모로 구분되어 있다. 1=전혀 아니다, 2=다소 아니다, 3=다소 그렇다, 4=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원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α 0.85이다(오종임, 2015). 본 연구에서는 이 중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의 측정을 위해 감독, 애정, 합리적 설명의 세 요인을, 부정적 양육태도 측정을 위해 과잉기대, 과잉간섭, 비일관성의 세 요인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긍정적 양육태도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854였고, 하위요인인 감독은 .759, 애정은 .819, 합리적 설명은 .742로 모두 양호한 수치를 보였다. 부정적 양육태도 역시 전체 신뢰도 .832, 하위요인 별 신뢰도는 과잉기대가 .702, 과잉간섭이 .639, 비일관성이 .608로 수용 가능한 수준이었다.

2) 부정적 정서 (중2 자료)

(1) 사회적 위축

사회적 위축은 김선희와 김경연(1998)이 개발한 척도 중 '주위에 사람들이 많으면 어색하다', '부끄러움을 많이 탄다', '다른 사람들에게 내 의견을 분명하게 말하기 어렵다' 등 사회적 위축을 나타내는 5문항으로 측정되었다. 아동·청소년패널(KCYPS)의 데이터에서는 '1=매우 그렇다 ~ 4= 전혀 그렇지 않다'의 4점 척도로 조사되었으며,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로부터 산출한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850으로 높은 편이었다.

(2) 우울

우울 척도는 간이정신진단검사(김광일, 김재환, 원호택, 1984) 중 10문항이다. 간이정신진단검사는 Derogatis(1973)에 의해 개발된 것을 김광일, 원호택 등(1984)이 표준화를 하였으며, 우울 불안 등 8개 증상 차원에 대한 90개 문항으로 구성된다. 아동청소년패널(KCYPS)의 데이터는 우울을 나타내는 10문항을 '1=매우 그렇다 ~ 4=전혀 그렇지 않다'의 4점 척도로 측정하여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로부터 산출한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904로 매우 높은 편이었다.

3) 비행 피해 경험 (중3 자료)

비행 피해 경험은 아동·청소년패널(KCYPS) 데이터의 연간 비행 피해 경험의 유무를 합산하여 산출하였다. 비행 피해는 심한 놀림이나 조롱당하기, 집단 따돌림(왕따) 당하기, 심하게 맞기(폭행), 협박당하기, 돈이나 물건 빼기기(뺑 뜯기기), 성폭행이나 성희롱, 심한 욕설(듣기)의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각의 경우에 대한 경험 유무(1=있다, 2=없다)가 조사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없다=0, 있다=1'로 역채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비행 피해 경험이 많은 것을 의미하도록 하였다.

3. 자료분석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및 상관계수는 SPSS 21.0 프로그램으로 산출하였고, AMO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연구모형의 적합도 및 경로계수를 추정하였다. 본 연구의 독립변수 및 매개변수들(긍정적 양육, 부정적 양육, 사회적 위축, 우울)은 조작적 정의를 통해 측정되므로 잠재변수(latent variable)로 설정하였다. 한편, 종속변수인 비행 피해 경험의 경우 절대적도로서 또래로부터 받은 피해의 빈도로 측정되기 때문에 관측변수(observed variable)로 설정하였다. 잠재변수로 설정된 긍정적 양육은 감독, 애정, 합리적 설명의 세 하위변수를 관측변수로 하였고, 부정적 양육은 과잉기대, 비밀관, 과잉간섭을 관측변수로 하였다. 사회적 위축과 우울은 단일 요인이므로 문항합산(item parceling) 방법을 사용하여 관측변수를 생성하였다. 구조모형 분석을 통해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평가하고 연구모형을 검증하였다.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χ^2 (Chi-square Test), RMSEA(Root Mean Squared Error Approximation), TLI(Tucker-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로 평가되었다. TLI와 CFI는 .90이상, RMSEA는 .06 이하이면 좋은 적합도를 나타낸다(홍세희, 2000). 또한, 간접경로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EM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결측치를 처리한 후, 1,000번 반복추출 한 샘플에 대해 95% 신뢰구간을 적용한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기법이 사용되었다. 개별 매개변인들의 효과는 팬텀(Phantom) 변수를 통해 분석되었다.

IV. 연구 결과

1.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표 1에는 평균, 표준편차를 포함한 연구변수들 간 상관계수가 제시되어 있다. 우선 종속변수인 비행 피해 경험과의 상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긍정적 양육태도에 해당하는 중1 시점의 감독($r=-.01, p>.05$), 애정($r=-.03, p>.05$)과는 부적 상관을, 합리적 설명($r=.01, p>.05$)과는 정적 상관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

한 수치는 아니었다. 부정적 양육태도의 경우 중1 시점의 과잉기대($r=.03, p>.05$)를 제외하고 나머지 비일관성($r=.05, p<.05$)과 과잉간섭($r=.04, p<.05$)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정적 상관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일관적이고 간섭이 심한 양육태도가 중3 시점의 높은 비행 피해 경험과 관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중2 시점의 사회적 위축($r=.06, p<.01$), 우울($r=.05, p<.05$)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지니는 것으로 산출되었다. 이는 높은 수준의 사회적 위축과 우울이 빈번한 비행 피해 경험과 관계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양육태도와 사회적 위축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긍정적 양육태도에 해당하는 세 하위변수(감독 $r=-.10, p<.001$; 애정 $r=-.15, p<.001$; 합리적 설명 $r=-.11, p<.001$)들과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을, 부정적 양육태도에 해당하는 세 하위변수(과도한 기대 $r=.07, p<.01$; 비일관성 $r=.10, p<.001$; 간섭 $r=.11, p<.001$)들과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긍정적 양육태도는 낮은 수준의 사회적 위축과, 부정적 양육태도는 높은 수준의 사회적 위축과 관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계는 양육태도와 우울 간의 상관에서도 유사한 패턴으로 나타났다. 즉, 긍정적 양육태도(감독 $r=-.17, p<.001$; 애정 $r=-.24, p<.001$; 합리적 설명 $r=-.19, p<.001$)와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을, 부정적 양육태도(과잉기대 $r=.12, p<.001$; 비일관성 $r=.18, p<.001$; 과잉간섭 $r=.16, p<.001$)와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긍정적 양육태도는 낮은 우울과, 부정적 양육태도는 높은 우울 수준과 관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위축과 우울은 정적 상관을 지니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치였다($r=.53, p<.001$).

또한, 연구모형 분석에 앞서 각 변수들이 구조방정식의 기본 가정인 정규성 분포를 이루는지 살펴보았다. 왜도는 절대값 3, 첨도는 절대값 8 미만일 때 정규성을 만족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Kline(2005)의 견해에 따라 왜도와 첨도를 산출한 결과, '비행피해 중3' 변수를 제외한 모든 변수들이 정규성을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비행피해 중3' 변수의 경우 왜도 4, 첨도 15로 Kline이 제안한 기준에서는 다소 벗어났으나 Q-Q plot 확인 결과, 자료의 값이 도표의 직선에 근접하여 정규성을 위배하지 않는 것으로 보였다.

표 1
주요 변인들의 상관계수와 및 기술통계

(N=2,351)

	1	2	3	4	5	6	7	8	9
1. 감독 중1	1								
2. 애정 중1	.43***	1							
3. 합리적 설명 중1	.33***	.64***	1						
4. 과잉기대 중1	-.01	-.25**	-.17***	1					
5. 비밀관 중1	-.14***	-.34***	-.25***	.49***	1				
6. 과잉간섭 중1	-.06**	-.30***	-.18***	.66***	.56***	1			
7. 사회적 위축 중2	-.10***	-.15***	-.11***	.07**	.10***	.11***	1		
8. 우울 중2	-.17***	-.24***	-.19***	.12***	.18***	.16***	.53***	1	
9. 비행피해 중3	-.01	-.03	.01	.03	.05*	.04*	.06**	.05*	1
평균	3.16	3.01	2.82	2.63	2.34	2.41	2.24	1.93	.09
표준편차	.65	.65	.67	.66	.68	.63	.70	.61	.44

* $p < .05$, ** $p < .01$, *** $p < .001$

2. 부모양육 태도와 청소년 비행 피해 간 관계에 있어 우울, 사회적 위축의 매개효과

부모의 양육태도가 우울과 사회적 위축을 통해 청소년 비행 피해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그림 1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우선, 연구모형 검증에 앞서 이와 같이 설정한 인과관계가 적절한지 살펴보기 위해 몇 가지 대안적 모형과의 비교를 실시하였다. 이론적으로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우울, 사회적 위축, 비행 피해의 원인이 되는 것은 확인되었으므로, 우울, 사회적 위축, 비행 피해 간 인과관계의 적절성을 알아보기 위한 대안적 모형을 2개 설정하였다. Model 1은 연구모형에서 설정한 인과관계 중 [우울 → 사회적 위축]의 경로가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부모의 양육태도가 사회적 위축과 우울 각각을 통해 비행 피해에 영향을 미치나, 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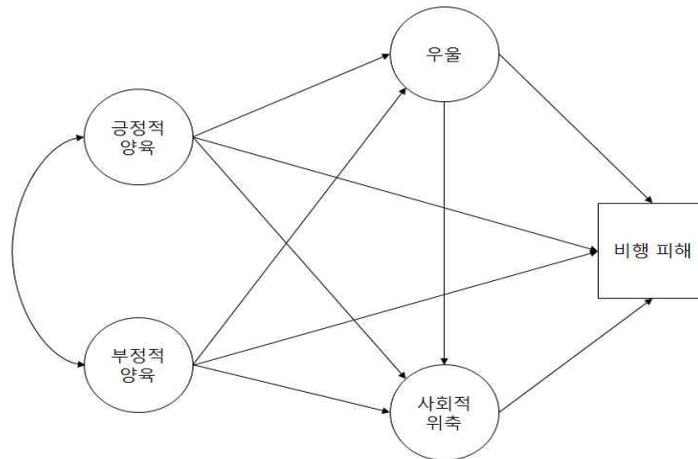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울과 사회적 위축 간에는 인과관계가 없는 모형이다. Model 2는 연구모형에서 설정한 인과관계 중 [우울 → 사회적 위축 → 비행 피해]의 경로가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부모의 양육태도가 비행 피해에 영향을 미치고, 비행 피해가 다시 우울과 사회적 위축에 영향을 미치며, 우울은 사회적 위축에 영향을 미치는 모형을 의미한다. 모형 간 적합도 비교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Model 1과 연구모형의 χ^2 차이는 683.55 ($\Delta df=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이었다($p<.001$). 이는 연구모형이 Model 1에 비해 우수함을 의미한다. Model 2의 경우 연구모형과 내포된(nested) 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AIC 지수로 적합도를 비교해 볼 수 있다(Akaike, 1987). AIC 지수는 작을수록 우수한 모형을 의미하므로 447.43으로 산출된 연구모형이 447.94로 산출된 Model 2보다 나은 적합도를 지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2

대안적 모형과 연구모형의 적합도

모형	χ^2	df	TLI	CFI	RMSEA	AIC
Model 1	1060.98	57	.881	.913	.087	1128.98
Model 2	377.94	56	.961	.972	.049	447.94
연구 모형	377.43	56	.961	.972	.049	447.43
최종 모형	381.51	61	.965	.927	.047	441.51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우울 → 사회적 위축 → 비행 피해]의 인과관계가 검증된 것으로 보고 연구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모형을 통해 밝혀진 부모의 양육태도, 우울, 사회적 위축 간의 관계는 표 3과 같다.

표 3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경로	비표준화 계수	S.E.	표준화 계수
긍정적 양육 → 우울	-.450***	.052	-.233
부정적 양육 → 우울	.125***	.028	.118
긍정적 양육 → 사회적 위축	.020	.053	.009
부정적 양육 → 사회적 위축	.010	.030	.008
우울 → 사회적 위축	.736***	.029	.609
긍정적 양육 → 비행 피해	.010	.036	.007
부정적 양육 → 비행 피해	.036	.020	.045
우울 → 비행 피해	.008	.024	.011
사회적 위축 → 비행 피해	.038*	.019	.060

* $p < .05$, *** $p < .001$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긍정적 양육태도가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낮아지는 한편($\beta = -.233$, $p < .001$), 부정적 양육태도가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아지는($\beta = .118$, $p < .001$)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긍정적, 부정적 양육태도가 학생의 사회적 위축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_{\text{긍정적 양육}} = .009$, $p > .05$; $\beta_{\text{부정적 양육}} = .008$, $p > .05$). 한편, 우울은 사회적 위축을 유의하게 예측했다($\beta = .609$, $p < .001$). 즉, 우울이 높아질수록 사회적 위축 수준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행 피해에 대해서는 긍정적 양육과 부정적 양육, 그리고 우울의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beta_{\text{긍정적 양육}} = .007$, $p > .05$; $\beta_{\text{부정적 양육}} = .045$, $p > .05$; $\beta_{\text{우울}} = .011$, $p > .05$). 다만 사회적 위축은 비행 피해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했는데, 사회적 위축이 높아질수록 비행 피해 수준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060$, $p < .05$).

부모 양육 태도와 청소년의 비행 피해 간 관계에 있어 우울과 사회적 위축이 미치

는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표 4와 같이 매개효과 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긍정적 양육 → 우울 → 사회적 위축 경로의 간접효과($B=-.332, p<.01$)와 부정적 양육 → 우울 → 사회적 위축 경로의 간접효과($B=.092, p<.01$)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긍정적 양육과 부정적 양육이 우울을 통해 사회적 위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부모의 양육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지각한 청소년들은 우울 수준이 낮고 사회적으로도 덜 위축되는 경향이 있을 것이나, 부정적인 것으로 지각한 청소년은 우울 수준이 높고 그로 인해 사회적으로 위축되는 경향도 높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표 4

매개효과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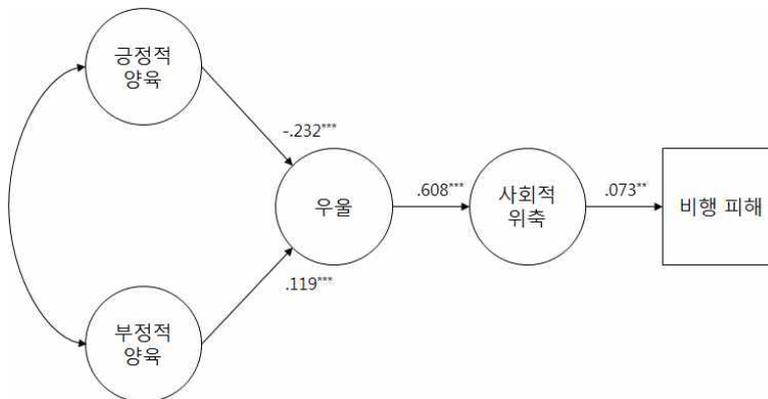
경로	B	S.E.	95% 신뢰구간	
			Lower	Upper
긍정적 양육 → 우울 → 사회적 위축	-.332**	.041	-.418	-.258
긍정적 양육 → 우울 → 비행 피해	-.004	.011	-.029	.018
긍정적 양육 → 사회적 위축 → 비행 피해	.001	.002	-.003	.008
긍정적 양육 → 우울 → 사회적 위축 → 비행 피해	-.012*	.007	-.026	.000
부정적 양육 → 우울 → 사회적 위축	.092**	.021	.050	.136
부정적 양육 → 우울 → 비행 피해	.001	.003	-.005	.008
부정적 양육 → 사회적 위축 → 비행 피해	.000	.001	-.002	.004
부정적 양육 → 우울 → 사회적 위축 → 비행 피해	.003*	.002	.000	.009
우울 → 사회적 위축 → 비행 피해	.028**	.014	.000	.056

* $p<.05$, ** $p<.01$

또한, 우울 → 사회적 위축 → 비행 피해의 경로에 있어 간접효과($B=.028, p<.01$)가 유의했고, 긍정적/부정적 양육 → 우울 → 사회적 위축 → 비행 피해의 경로에 있어 간접효과 역시 유의했다($B_{\text{긍정적 양육}}=-.012, p<.05$; $B_{\text{부정적 양육}}=.003, p<.05$). 그러나 긍정적/부정적 양육 태도가 우울을 통해 비행 피해에 미치는 간접효과($B_{\text{긍정적 양육}}=-.004, p>.05$; $B_{\text{부정적 양육}}=.001, p>.05$)나 긍정적/부정적 양육 태도가 사회적 위축을 통해 비행 피해에 미치는 간접효과($B_{\text{긍정적 양육}}=.001, p>.05$; $B_{\text{부정적 양육}}=.000, p>.05$)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부모의 양육 태도가 사회적 위축과 우울을 통해 비행 피해로 영향을 미치지만, 우울 혹은 사회적 위축만을 통해서는 비행 피해로까지 연결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계수가 산출되지 않았던 [부모 양육태도 → 사회적 위축], [부모 양육태도 → 비행 피해], [우울 → 비행 피해]의 경로를 삭제하고 그림 2와 같이 최종 모형을 도출하였다. 최종 모형과 연구모형의 χ^2 차이는 4.08 ($\Delta df=5$)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05$). 이는 최종 모형이 연구모형에 비해 우수함을 의미한다.



주. 경로계수는 표준화 회귀계수임.

** $p<.01$, *** $p<.001$

그림 2. 최종 모형

V. 논 의

본 연구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 자녀의 비행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비행 피해 대상 청소년의 대표적 심리적 특성으로 논의되어온 우울과 사회적 위축의 매개효과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우울과 사회적 위축을 비행 피해의 결과가 아닌 선행 위험요인으로 살펴봄으로써 학급 풍토나 또래관계와 같은 환경 수준 이전에 청소년 개인 수준에서 비행피해를 예방하는 효과적인 개입책을 마련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또한, 우울과 사회적 위축감이 부모의 양육태도에서 유발된다는 애착이론(Bowlby, 1988) 및 가족관계도식 모형(family relational schema model, Perry et al., 2001)에 기반하여 지각된 부모의 긍정적, 부정적 양육태도가 우울 및 사회적 위축을 통해 비행피해로 이어지는 인과적 경로를 종단자료를 활용하여 구조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정리해보면, 첫째, 부모의 양육태도와 비행 피해 경험의 관계는 선행 연구결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하였다. 즉, 상관분석 결과, 긍정적 양육태도로 분류된 중1 시점의 감독, 애정은 비행 피해 경험과 부적상관을, 그리고 합리적 설명은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고, 부정적 양육태도 중 비일관성과 간섭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정적 상관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1시점에 지각된 다른 유형의 양육태도보다도 비일관적이고 간섭이 심한 양육태도가 중3 시점에 비행 피해를 경험할 확률을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흥미롭게도, 긍정적, 부정적 양육태도 모두 비행 피해 경험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력이 중2 시점에 측정된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인 우울 및 사회적 위축 변인을 투입한 구조 모형 분석에서는 더 이상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종래의 연구들처럼 부정적인 부모 양육태도와 비행 피해 경험 간의 정적인 관계를 보여줌으로써 단순히 부모-자녀 상호작용이 비행 피해의 중요한 예측변인임을 밝히는데 그쳐서는 안됨을 보여주는 연구결과이다. 이는 또한, 애착이론(Bowlby, 1988) 및 가족관계도식 모형(family relational schema model, Perry et al., 2001)의 주장을 경험적으로 지지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즉, 부모와의 상호작용이야말로 아동 및 청소년 자녀의 또래관계의 출발점인데, 그 이유가 부모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반복적으로 느꼈던 부정적인 정서상태가 또래와의 관계 속에서도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이므로, 양육으로 인한 상호작용으로 유발된 자녀의 심리특성(예: 우울, 사회적 위축)을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다. 이 같은 결과는 비행피해를 예방하는데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가르치는 부모교육을 통한 개입 뿐 아니라, 부정적 양육태도로 손상을 입은 청소년 자녀의 심리사회적 역량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개입도 중요함을 시사해준다.

둘째, 구조분석 결과, 부모의 양육 태도가 사회적 위축과 우울을 통해 비행 피해로 영향을 미치지만 우울 혹은 사회적 위축 중 어느 한 변인만을 통해 비행 피해로까지 연결되지 못했다. 유일하게 유의했던 경로는 중1 시점에 지각된 양육태도가 중2 시점의 우울과 사회적 위축감 변인을 순차적으로 거쳐 중3 시점의 비행 피해 경험 수준에 이르는 경로였다. 즉, 우울과 사회적 위축감은 부모의 양육태도와 비행 피해 경험의 관계에서 단순매개효과는 보이지 못하고 인과적인 이중매개효과를 보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부모의 긍정적, 부정적 양육태도 모두 우울에만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사회적 위축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유의한 상관을 보이던 부모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감은 우울 변인을 투입한 구조분석에서는 더 이상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 우울은 사회적 위축에 정적인 직접 영향을 미침으로써, 지각된 부모 양육행동과 사회적 위축의 관계에서 완전매개 효과를 보였다. 앞서 언급했듯이, 부모양육태도와 비행피해 경험 간의 관계에서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의 매개역할을 분석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우울(Batanova & Loukas, 2014) 혹은 사회적 위축(조예진 외, 2015)과 같이 단일 변인만 살펴보는데 그쳤다면, 본 연구는 부모 양육태도에 의해 유발된 우울이라는 내면화 문제가 또래 관계 상황에서 사회적 위축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음을 경로분석 결과로 입증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은 우울 수준에 의해 예측될 뿐 아니라, 청소년 비행 피해 경험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즉, 사회적 위축은 우울과 비행 피해 경험 간의 관계를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적지 않은 연구들이 우울과 사회적 위축의 관계를 상호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우울이 사회적 위축을 야기할 수도 있지만, 반대의 경로도 가능할 수 있음을 보고해왔다(김보영, 장은비, 2015; 이봉주 외, 2014). 그러나 본 연구는 부모의 양육태도로 유발된 청소년의 우울이 사회적 위축을 예측하는 경로가 유의함을 밝힘으로써, 우울이 사회적 위축의 주요 예측변인이라고 보고한 선행연구 결과를(이봉주 외, 2004; Grozer & Aldon, 2005; Rubin & Coplan, 2004) 지지하였다. 이와 함께 주목할 점은 우울이 1년 후의 비행 피해 가능성을 직접 예측하지 못하고 사회적 위축을 통해서 예측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

동안 여러 연구에서 우울이 청소년의 비행 피해 경험에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부정적 정서임을 강조해왔지만(Botanova & Loukas, 2014; Hong et al., 2014; Rigby et al., 2014), 정작 그 구체적인 메커니즘은 밝히지 못해왔다. 본 연구 결과에 비추어볼 때, 우울감이 에너지가 고갈되고 침체되어 있는 정서 상태라면, 비행 피해가 실제 일어나는 상황에서는 소극적이거나 회피적 태도를 보이는 사회적 위축으로 표출되어 이것이 청소년으로 하여금 비행 피해의 표적이 될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추측해볼 수 있다.

본 연구결과는 부모교육과 청소년 상담에 크게 두 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비행 피해 예방에 있어 학교 및 또래관계의 중요성만큼이나 가정에서의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중학생 시기에도 여전히 부모의 영향력은 사라지지 않으며, 우울이라는 부정적 정서에 대해 애정어린 감독과 합리적 설명을 동반한 긍정적 양육 태도는 보호요인의 역할을, 그리고 일관성이 결여된 간섭과 통제는 위험요인임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비행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학교 및 청소년 기관을 중심으로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기를 수 있는 부모 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이상균, 정현주, 2013; 조예진 외, 2015). 둘째, 비행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해 위험 청소년을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울, 사회적 위축처럼 피해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정서 특성을 보이는 청소년을 미리 선별하고 이들의 사회·심리 역량을 신장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학교에서 다양한 심리검사와 부모와의 상호작용에 대한 인식 등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를 포함한 설문을 학기 초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위축되고 우울한 청소년은 교사의 주의 없이는 소외되기 쉬우며(조예진 외, 2015) 이미 부모와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경험한 경우, 자존감 저하로 타인과 관계 맺기도 어렵기 때문에(Perry et al., 2001), 각별한 관심이 요구되며 필요에 따라서는 청소년 기관 의뢰를 통해 추가적인 개인상담 및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동청소년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함으로써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첫째, 패널 자료의 한계로 부모 양육태도와 청소년 비행 피해 경험을 매개하는 심리적 특성을 보다 다양하게 살펴보지 못했다. 선행연구에서는 비행피해 대상자의 성격특성으로 우울과 사회적 위축 외에 불안, 자존감 저하, 비합리적인 스트레스 대처 전략, 낮은 정서 탄력성 등이 제시된 바 있다(Batanova & Loukas, 2014; Rigby et

al., 2007; Turen et al., 2010). 향후 연구에서는 이들을 통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피해 유형 및 피해 위험군의 유형을 구분하여 분석하지 못했다. 예컨대,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또래 관계 및 빈번한 비행피해 유형이 다르므로 경로가 달라질 수 있다(Rigby et al., 2007). 마찬가지로, 소극적 피해자(passive victim)와 공격적 피해자(provocative victim)는 피해상황을 인식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보고가 있다(Perry et al., 2001). 또한, 신체적 폭력피해와 언어 및 관계성 학교폭력도 그 양상이 다를 수 있다(도현심 외, 2003). 그러나 본 연구는 피해위험 군의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측정변인으로 분석했으며 피해 유형도 하나의 변수로 합산하여 분석한 한계가 있다. 셋째, 인과적 경로 분석을 위해 시간차를 두어 변인들의 구조관계를 분석했으나 중 3시점의 비행 피해 경험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이전 비행 피해 경험을 통제하지 못했다. 이는 패널 자료의 한계로서, 향후 연구에서는 성별, 중1시점의 우울감, 중1 시점의 비행피해 경험 등을 통제한 연구 모형을 설정하여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가출 등의 비행과 달리, 성희롱, 협박, 돈이나 물건 탈취 등의 비행피해는 지역 사회의 여건(예: 우범지역 거주)의 영향력이 클에도 불구하고 통제하지 않아 본 연구의 인과관계가 과잉 추정되었을 여지가 있다.

이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청소년의 심리특성을 비행 피해의 결과가 아닌 선행 위험요인이자 부모의 양육태도와 비행 피해 간의 매개변인으로 살펴봄으로써, 부모 교육 제공과 더불어 청소년의 사회·심리 역량 개발을 비행 피해의 예방 방안으로서 제시한 데 의의가 있다. 아울러, 우울과 사회적 위축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여 부모 양육으로 유발된 우울 정서가 비행 피해 위험 상황에서 위축감이라는 특성으로 드러날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부모와의 부적합한 관계가 또래 및 사회관계에서 비행 피해의 표적으로 선택될 가능성을 높여주는 방식으로 전이되는 과정을 보여주었다는 데도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 권세원, 이동은, 장은혜, 한기주 (2013). 고등학교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대한 중학생 시기 학교폭력 피해경험의 중단적 영향과 우울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0(11), 205-231.
- 권재환, 이은희 (2006). 남녀 청소년의 충동성, 부모의 양육태도, 개인의 통제력,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17(1), 325-351.
- 김광일, 김재환, 원호택 (1984). **간이정신진단검사 실시요강**.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김보영, 장은비 (2015). 중학생의 사회적 위축이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우울을 통한 또래애착과 성취가치의 조절된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2(7), 31-52.
- 김선희, 김경연 (1998). 아동 및 청소년의 행동문제 척도 개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4), 155-166.
- 김재엽, 장용언, 민지아 (2011).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조절효과. **청소년학연구**, 18(7), 209-234.
- 김재엽, 최권호 (2012). 중북학대 피해 청소년의 우울, 공격성, 비행행동: 신체학대와 방임의 중복을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4(3), 193-213.
- 김진아, 한귀례 (2014). 부모양육태도와 정서문제의 관계구조. **상담학연구**, 15(6), 2379-2399.
- 김현숙 (2013). 지속된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청소년의 신체발달, 사회정서발달, 인지 발달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15(2), 121-143.
- 도현심 (1998). 인성특성 및 또래에 의한 괴롭힘과 청소년의 외로움간의 관계.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36(12), 1-9.
- 도현심, 권정임, 박보경, 홍성흔, 홍주영, 황영은 (2003). 또래 괴롭힘 피해아의 특성에 기초한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 부모교육 프로그램과 사회적 기술 훈련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24(4), 103-121.
- 박경인, 정승원, 신안나 (2013). 초·중학생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프로파일 분석. **한국청소년연구**, 24(2), 91-118.
- 박보경 (2013). 걸음마기 아동의 기질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사회적 위축 및 공격성간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1(6), 67-81.

- 박은주, 최말옥 (2014). 부모의 학대적 양육태도와 청소년비행경험 및 피해경험에 관한 연구: 우울 및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8(4), 219-238.
- 서석남, 이상구, 임상호 (2012). 청소년이 느끼는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가 자기효능감, 스트레스, 우울,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정책연구**, 10(8), 327-333.
- 소선숙 (2008).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과 학교적응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신민섭, 오경자 (1993). 청소년기의 자아정체감 혼란과 부적응 행동. 한양대학교 학생생활 연구소, **대학생활연구**, 1171-1184.
- 신성웅, 권석우, 신민섭, 조수철 (2000). 학교폭력 피해자의 정신병 실태 조사. **소아·청소년정신의학**, 11(1), 124-143.
- 오종임 (2015).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가 정신건강과 일탈행위에 미치는 영향**. 광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봉주, 민원홍, 김정은 (2014). 청소년기 사회적 위축 문제의 발달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발달-맥락주의적 관점을 적용한 탐색적 연구. **청소년학연구**, 21(8), 317-346.
- 이상균 (2008). 청소년 비행행동의 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과 위험요인. **사회복지연구**, 39, 315-342.
- 이상균 (2009). 청소년기 경비행행동과 부모양육행동간의 병렬적 잠재성장모형 분석. **한국가족복지학**, 27, 243-266.
- 이상균 (2012). 청소년기 비행행동과 부모양육행동간의 상호인과적 관계에 대한 종단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36, 157-185.
- 이상균, 정현주 (2013). 학교폭력 경험과 부모양육 행동간의 종단적 관계 및 잠재유형 분석: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학교사회복지**, 24, 1-29.
- 이성식 (2007). 낮은 자기통제력과 비행친구의 청소년비행에의 영향: 청소년패널자료의 분석. **한국청소년연구**, 18(2), 159-181.
- 이종원, 황진구, 서정아, 한영근, 허효주, 이영화 외 (2013).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 iv 사업보고서**.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주리 (2010). 한부모 가정 청소년의 부모 양육 태도와 외현화 문제 간 관계: 자아 통제와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8(2), 123-130.
- 전성일, 이정호, 이기철, 최영민 (1996). 청소년의 우울증과 행동장애에서의 부모 양육

- 태도에 관한 연구. **소아청소년정신의학**, 7(1), 34-43.
- 정하은, 전종설 (2012). 청소년 학교폭력 피해의 위험요인. **청소년복지연구**, 14(1), 195-212.
- 조예진, 주해원, 현명호 (2015). 부정적 양육과 사회적 위축이 청소년 비행피해에 미치는 중단적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6(2), 59-81.
- 한상영, 전용관 (2012). 학교폭력 피해 경험 중학생의 정신건강과 신체적 증상이 자살 생각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3(11), 5111-5162.
- 허묘연 (1999).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 척도 개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허묘연 (2004).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청소년 상담연구**, 12(2), 170-189.
- 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Akaike, H. (1987). Factor analysis and AIC. *Psychometrika*, 52, 317-332.
- Batanava, M. D., & Loukas, A. (2014). M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and peer victimization in early adolescence: An application of the family relationship schema model.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34, 206-228.
- Bell-Dolan, D. J., Reaven, N. M., & Peterson, L. (1993). Depression and social functioning: A multidimensional study of the linkages.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2(3), 306-315.
- Bifulco, A., Schimmenti, A., Jacobs, C., Bunn, A., & Rusu, A. C. (2014). Risk factors and psychological outcomes of bullying victimization: A community-based study. *Child Indicators Research*, 7(3), 633-648.
- Boivin, M., Hymel, S., & Bukowski, W. M. (1995). The roles of social withdrawal, peer rejection, and victimization by peers in predicting loneliness and depressed mood in childhood.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7(4), 765-785.
- Bowlby, J. (1988). *A secure base*. New York, NY: Basic Books.
- Crozer, R., & Aldon, L. E. (2005). *Essentials of social anxiety for clinicians*. New York: Willey.

- Davies, P. T., & Cummings, E. M. (1994). Marital conflict and child adjustment: An emotional security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116*(3), 387.
- Derogatis, L. R. (1973). SCL-90: An outpatient psychiatric rating scale-Preliminary report. *Psychopharm Bull, 9*, 13-27.
- Dill, E. J., Vernberg, E. M., Fonagy, P., Twenlow, S. W., & Gamm, B. K. (2004). Negative affect in victimized children: The roles of social withdrawal, peer rejection, and attitudes toward bullying.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2*(2), 159-173.
- Georgiou, S. N. (2008). Parental style and child bullying and victimization experiences at school. *Social Psychology of Education, 11*(3), 213-227.
- Hong, J. S., Lee, C., Lee, J., Lee, N., & Garbarino, J. (2014). A review of bullying prevention and intervention in South Korean schools: An application of the social-ecological framework. *Child Psychiatry and Human Development, 45*, 433-422.
- Kline, R. B. (200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2nd ed.). NY: Guilford Press.
- Marini, Z. A., Dane, A. V., Bosacki, S. L., & YLC-CURA (2006). Direct and indirect bully-victims: Differential psychosocial risk factors associated with adolescents involved in bullying and victimization. *Aggressive Behavior, 32*, 551-569.
- Mills, R. S., & Rubin, K. H. (1998). Are behavioural and psychological control both differentially associated with childhood aggression and social withdrawal?. *Canadian Journal of Behavioural Science/Revue Canadienne Des Sciences Du Comportement, 30*(2), 132.
- Patterson, G. R. (1986). Performance models for antisocial boys. *American Psychologist, 41*, 432-444.
- Perry, D. G., Hodges, E. V. E., & Egan, S. K. (2001). Determinants of Chronic Victimization by Peers: A review and a new model of family influence. In J. Juvonen, & S. Graham(Eds.), *Peer harassment in school: The plight of the vulnerable and victimized*(pp. 73-104).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Rigby, K., Slee, P. T., & Martin, G. (2007). Implications of inadequate parental bonding and peer victimization for adolescent mental health. *Journal of Adolescence, 30*, 801-812.
- Rubin, K. H., Burgess, K. B., Kennedy, A. E., & Stewart, S. L. (2003). Social withdrawal in childhood. *Child Psychopathology, 2*, 372-406.
- Turner, H. A., Finkelhor, D., & Ormrod, R. (2010). Child mental health problems as risk factors for victimization. *Child Maltreatment, 15*, 132-143.

ABSTRACT

The mediating effects of depression and social withdrawal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parenting attitudes and adolescent victimization

Choi, Hyunju* · Shin, Haejin**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d the mediating effects of depression and social withdrawal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parenting attitudes and adolescent victimization. The sample was taken from the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KCYPs), and the data of 2,351 adolescents from the 7th to 9th grade were analyzed. Using path analysis, the authors examined how adolescent depression and social withdrawal in the period of the 8th grade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parenting attitudes in the 7th grade and victimization in the 9th grade. The results confirmed a dual mediating model. That is, perceived parenting attitudes in the 7th grade predict increases in depression in the 8th grade, which subsequently increases adolescent social withdrawal and ultimately contributes to the risk of victimization. More specifically, perceived parenting attitudes had no direct effect on victimization and both negative and positive parenting attitudes in the 7th grade made a significant difference to depression in the 9th grade, in contrast to social withdrawal. Additionally, social withdrawal in the 8th grade significantly impacted on victimization in the 9th grade, which was not seen in the case of depression. Lastly, depression predicted increases in social withdrawal. The implications of this research and suggestions for future study were also discussed.

Key Words: parenting attitudes, depression, social withdrawal, victimization

투고일: 2016. 3. 14, 심사일: 2016. 5. 3, 심사완료일: 2016. 5. 10

* Korea University

**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